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0월 호

「What`s Up, OITA!」는 세계에서 활약하고 계시는 오이타와 인연있는 여러분들께, 일본 오이타현의 ‘지금’을 전달해드립니다.



## 【인사】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과장 호리 순로(堀 俊郎)

10월 초에는 최고기온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이 지속되었으나, 중순에 들자 급격히 선선히 졌습니다. 지난 3일에는 온천현 CM ‘싱크로 인 온천’의 제 2탄인 ‘가자, 싱크로부!’가 공개되었습니다. 메이킹 영상까지 재미있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이벤트도 연이어 열리는 이 시기에 여행객 여러분들도 오이타의 가을을 만끽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오이타현 주목 기사>

### 현농림수산물 팸플릿 완성

양식 방어, 오이타 분고소고기, 건표고버섯을 중심으로 오이타현이 사랑하는 풍부한 식자재를 지옥 찜 또는 류큐(생선을 간장에 절인 요리)등으로 요리하는 식문화와 온타야키(도기), 대나무 젓가락 등 공예품까지 한가득 담아 소개하는 해외 발신용 팸플릿을 작성하였습니다.

인바운드 정책을 시야에 두며, 일본어판을 비롯한 영어판, 대만·홍콩·마카오 용의 번체자판과 상해·북경·대련 용의 간체자판을 포함한 총 4종류의 팸플릿을 작성하여 상담회 및 판촉 페어, 바이어 초빙 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이타현산의 매력 넘치는 브랜드 식자재가 8페이지로 압축되어 소개되고 있으며,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는 준비 중이나, 현상품의 판로확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이타브랜드추진과】



### 오이타현 대만 프로모션 개최

9월 8일부터 10일, 3일 간 히로세 지사를 단장으로, 상공회의소연합회회장, 현공업연합회회장, 투어리즘오이타회장 및 농림수산단체, 관계기업 등에서 총 101명의 방문단이 대만을 방문하여, 제조산업기업교류회와 현산 식자재를 사용한 ‘오이타현의 밤’, 현상품 상담회 및 판촉활동 등을 실시하는 현상품과 관광이 일체화 된 프로모션을 개최하였습니다. 또 타이중시와 우호교류에 관한 각서를 체결하여 앞으로의 교류 촉진을 도모함과 동시에 정기 항공편 취항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국제정책과】

‘오이타현의 밤’은 대만의 관광, 무역, 유통, 제조, 미디어, 현인회 등에서 약 193명이 참가해주셨으며, 오이타현의 음식과 관광 매력을 어필할 수 있었습니다. 현산품의 메뉴를 사용한 시식 및 브랜드오이타 수출촉진협의회 농산부회 등 총 8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유학생 OB의 통역과 함께 가공품의 시식 및 전시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이타현의 밤’ 회장 내 모습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0월 호

## 오이타 100% 즐기기! 아지무페어 와인 마츠리 2016



오이타현 북서지역 분지에 위치해있는 우사시 아지무정은 일교차가 심한 분지기후로서 포도 농사에 적합하여 서일본 유수의 포도산지인 곳입니다. 기후의 특성을 살려 뛰어난 품질의 포도를 재배하고 이 포도를 원료로 부드러운 향과 맛의 와인을 빚어내기로도 유명합니다.

‘아지무페어 와인 마츠리2016’은 포도의 수확시기인 9월, 한 해의 포도 수확에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지무 오리지널의 와인을 맛볼 수 있도록 아지무정 가족여행촌 아지무 벚꽃광장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예년보다 포도의 당도도 높아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고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습니니다.

오이타역에서 특급열차 소닉을 타고 야나기가우라역까지는 약 45분정도 걸립니다. 이벤트 회장까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가 불편한 곳이므로, 이 날은 야나기가우라역에서 이벤트 회장까지 가는 셔틀버스가 운행 중이었습니다. 운임은 300엔이며, 셔틀 버스를 타고 30분이 지나 이벤트 회장인 가족여행촌 아지무 벚꽃광장에 도착하게 됩니다. 아직 오전 11시도 되지 않은 시간이었으나 이미 회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친구끼리 찾아오는 사람들은 물론 단체 관광객들도 꽤 많았습니다.

‘아지무페어 와인 마츠리2016’에서는 포도따기 투어와 사적지 투어를 실시하며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서둘러 접수처로 향했으나 안타깝게도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투어는 모두 접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쉽지만 기차 시간에 맞춰 오후에 있는 포도따기 투어만 예약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적지투어는 아지무정의 관광지인 지옥극락(地獄極楽)과 난코지절 인왕상, 일본의 양각기법인 고테에(こて絵) 등을 감상하는 100분 코스였습니다. 두 투어의 참가비는 각각 200엔이므로 저렴하게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으며 대중교통으로는 방문하기 어려운 곳을 편하게 둘러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나 다음을 기약해야 되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어 이벤트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넓은 광장에는 우사 카라아게와 아지무의 특산물인 포도, 자라, 미꾸라지 등 다양한 노점들이 늘어섰고, 정중앙에는 이번 이벤트를 위해 만들어진 약 7천잔 분량의 특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 부스가 보였습니다. 또 한 편에는 천막 아래에 테이블과 의자가 마련되어 있어 이 곳에서 노점에서 산 음식과 와인을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저도 티켓판매 부스에서 와인잔과 와인 티켓을 구매하여 레드 와인을 맛보았습니다. 향은 물론 맛도 부드러워 마시기 쉬운 와인이었습니다. 함께 먹은 우사 카라아게도 생각보다 와인과 잘 어울려서 놀랐습니다. 또한 이 날은 메인 스테이지에서 가수 오노 리사의 공연이 있었으며, 다음 날에는 전통 공연과 포도 빨리 먹기 대회가 예정되어 있어 먹거리는 물론 볼거리 모두 만족시켜주는 이벤트였습니다.



# What`s Up, OITA!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김진아 (pu101502@pref.oita.jp)

2016년 10월 호

## 오이타 100% 즐기기! 아지무 농원 포도따기 체험



예약한 시간에 맞추어 버스를 타고 포도 농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지무에는 포도 농원이 여러 곳 있는데, 제가 방문한 곳은 아지무 농원이라는 곳입니다. 이미 개인적으로 온 사람들도 있어서 농원에서는 다같이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위와 봉투를 들고 40종류의 포도를 재배 중인 농원으로 들어섭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직원이 포도의 종류와 설명을 해주며 시식 용 포도를 나눠줍니다. 6~7종류의 포도를 시식해보고 맛과 이름을 기억해뒀다가 시식이 끝나면 맛있었던 포도를 직접 딴 후 나가면서 계산하는 형식입니다. 시식했던 포도는 전부 신선하고 맛있었지만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처음 시식했던 허니비너스라는 포도를 따았습니다. 허니라는 이름에 걸맞게 정말 달고 맛있었습니다. 또 직접 포도를 따보는 색다른 경험도 해서 즐거웠습니다.

아지무 농원 옆에는 카페가 있었는데, 일본에서도 활발한 6차 산업(농업 등 1차산업을 가공 및 판매까지 전개하는 경영형태)으로서 확립시켜나가고자 만든 카페라고 합니다. 농원에서 포도따기 체험을 한 후, 카페에서 신선한 포도로 만든 음료나 디저트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오이타 소식>

#### ‘Go! Beppu’ 제 36회 신문광고대상수상

일본신문협회는 지난 5월 초순 오이타합동신문에 게재된 장난기 가득한 캐치프레이즈의 4종류의 광고 ‘Go! Beppu 오이타에 가자! 캠페인’(온천현관광유치경기회)에 제 36회 신문광고 대상을 수여했습니다.

4월 구마모토와 오이타현에서 발생한 지진에 의한 풍평피해(뜬소문에 의한 피해)를 신속하게 대응하였다는 점이 평가 받았습니다.

#### ‘오이타 식자재 검색 시스템’ 개설

오이타현상품의 품목 및 출하시기, 산지 별 등으로 검색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생산자, 유통관계자, 소비자를 연결하여, 현상품을 보다 널리 유통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각 페이지는 기업명과 전화번호 등도 게재하고 있습니다.

※ 홈페이지 주소 [http://theoita.com/oita\\_search/](http://theoita.com/oita_search/)



높아진 하늘을 보며 가을이 다가왔음을 실감합니다. 이번 취재 장소는 우사시의 아지무였는데요. 아지무는 포도 재배와 그 포도로 만든 와인이 매우 유명한 곳입니다. 와인 와이너리도 견학할 수 있다고 하니,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은 우사시의 아지무를 꼭 방문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제교류원 김진아